

근현대 생전예수재의 전승양상

구미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I. 불교의례의 현대적 전승배경
- II. 예수재의 설행시기와 윤달예수재의 성립
- III. 죽음준비문화와 결합된 축제적 예수재
- IV. 복합적 양상으로 설행된 예수재
- V. 예수재의 의례적 특성과 전승양상
- VI. 예수재의 현대적 의의와 방향성

<한글요약>

생전예수재는 사후를 위해 생전에 미리 재를 올려 공덕과 선업을 쌓는 불교의례로 현재 윤달에 주로 설행되고 있다. 이에 근현대 예수재의 다양한 설행양상을 살펴보고 예수재가 지닌 의례적 특성을 분석하여 그 의미와 방향성을 조명하였다.

의식문에는 본래 예수재를 초하루·보름 등에 치르도록 했으나 언제부터인가 윤달에 행하는 대표적 의례로 정착되었다. 이는 윤달에 인간을 감시하는 신이 없어 극락으로 가는 저승문이 열린다는 민간의 관념과, 윤달을 특별한 시간으로 보아 불공을 올리는 역사가 결합해 점차 윤달예수재로 자리 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수재는 민간에서 수의를 미리 장만해 장수를 바라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일련의 죽음준비문화와 결합하여 전승되었다. 따라서 살아있을 때 천도굿을 지내는 산오구굿을 과생시켰고, 극락을 향한 반야용선에 직접 타기도 하면서 축제와 같은 역동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예수재는 산자를 위한 의례이지만 죽음을 다루는 자리이기에 망자의 복락을 함께 기원하였고, 무차천도를 중시하는 수륙재나 영산재와 결합하여 치러지기도 하였다. 아울러 예수재는 합동으로 치르는 것이 관례이지만 개인 또는 몇 명을 위해 예수재를 설행한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예수재의 의례특성에 비추어 현재의 전승양상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수재에서는 하단의 존재가 명부권속이지만, 망자천도를 함께 다루면서 ‘하단존재=영가’로 연결되고 하단관육이 부각되어 설단의 의미와 특성이 희석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둘째, 예수재에서는 명부시왕을 중심으로 한 중단의식이 가장 중요하나, 영산작법과 합설하여 치르면서 중위의 존재들을 청해 모시는 중단의식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셋째, 예수재는 하단 명부권속인 사자단·고사단·마구단을 차리고 공양을 올리는 절차를 통해 의례의 의미와 특성을 드러내게 되는데, 명부세계에 초청장을 보내는 사직사자를 청하는 순서를 뒤로 돌림으로써 예수재의 서사적 의미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넷째, 예수재에서는 생전의 업을 빚으로 표현하고 정토를 향한 과정을 가시화하는 지전과 반야용선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생략할 경우 예수재의 핵심요소를 잃게 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출가수행자의 참회의식이 포살이라면, 재가불자의 참회의식은 예수재였다. 예수재에는 불교의 세계관과 수행관이 집약되어 있어, 현재 한국특유의 윤달문화와 함께 형성된 윤달예수재는 그 자체로 전승시켜나가야 할 독자적인 의례이다. 따라서 불교종합예술로서 다채로운 의례요소와 결합된 윤달예수재와 병행하여, 일상의 예수

재 또한 점차 회복해갈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불교의례, 윤달, 수의(壽衣), 반야용선(般若龍船), 시왕(十王), 예수시왕생
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천도(薦度), 관욕(灌浴), 지전(紙錢),
함합소(咸合疏), 소번재(燒幡齋)

I. 불교의례의 현대적 전승배경

생전예수재(生前預修齋)는 사후를 위해 살아있을 때 미리 재를 올려 공덕과 선업을 쌓는 불교의례이다. 우리나라의 생전예수재는 시왕신앙이 활발하였던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중기인 16·17세기에 성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무렵은 기온이 낮아지는 소빙기(小氷期)에 접어들어 자연재해가 만연하였고,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외침으로 백성의 삶은 극도로 피폐하였다.¹⁾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적·경제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종교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수록재를 비롯한 각종 천도재가 성행했던 것이다. 조선중기에 수록재와 예수재 등의 의식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점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핍박받은 불교가 서민사회로 스며들게 된 토착화·기층화 현상도 불교의례의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수록재·영산재·예수재 등과 같이 작법과 범패가 따르는 대규모 불교의례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에 대한 요인으로는 첫째, 일제에 의해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나 의례를 봉쇄당한 점이다. 조선총독부는 마을굿과 농악에서부터 불교의례에 이르기까지 전통문화와 공동체행사를 탄압하여 한민족의 결속을 막고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하였다. 불교의례의 경우 1911년 일제는 「사찰령」을 반포하고 이듬해에 「각본말사법」을 제정, ‘화청(和淸)·고무(鼓舞)·나무(羅舞)·작법무(作法舞) 등은 일체 폐지’²⁾토록 하였다. 이처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범패와 작법과 장엄이 점차 사라져, 종합예술적 면모를 지녔던 불교의례의 전승기반이 크게 흔들리게 된 것이다.

둘째, 근대초기에 불교개혁을 주장하는 선각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불교의례에 대한 비판을 들 수 있다. 1910년에 한용운(韓龍雲)은 『조선불교유신론』을 발표해, “범패·사물·작법·예참 등 재공의식(齋供儀式)과 대령·시식 등 제사예절이 번잡하고 질서가 없어 도깨비의 연극과 같다”³⁾고 비판하면서 이러한 의식을 모두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1927년 박승주(朴勝周) 또한 예식의 절차가 법답지 않고 예식을 집행하는 행동이 난잡하다는 비판의 글⁴⁾을 『불교』지에 실었다. 근대의 불교의례가 정리되지 않고 난

1) 남희숙, 「16-18세기 佛敎儀式集의 간행과 佛敎大衆化」, 『韓國文化』 34(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4), pp.137-141; 고영섭, 「한국의 근대화와 전통 불교의례의 변모」, 『불교학보』 55(서울: 불교문화연구원, 2010), pp.396-400.

2) 이능화 지음, 이병두 역주, 『조선불교통사: 근대편』(서울: 혜안, 2003), p.282.

3) 한용운 지음, 이원섭 옮김, 『조선불교유신론』(서울: 운주사, 1992), pp.102-107.

4) 박승주, 「齋供儀式에 對하여」, 『佛敎』 第35號(1927. 7), pp.31-35.

삼하여 경건함을 잃었다는 세간의 비난과 함께 불교교단 내에서도 하나의 문제로 인식⁵⁾되었음을 뜻한다.

셋째,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된 불교정화 이후 한국불교는 선종을 표방하면서 전통 불교의례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취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참선과 수행을 중시하고 의례 행위를 소홀히 함에 따라 전통 불교의례의 위축을 불러온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의식만을 잘하면 마치 염불이나 하는 스님 정도로밖에 취급하지 않는 풍조”⁶⁾가 만연했던 것이다.

이처럼 전통 불교의례는 제대로 정비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대내외의 물결에 휩쓸려 수십 년 전까지 암울한 근현대기를 보냈다. 근대의 불교개혁가들 중에도 이러한 점을 아쉬워한 이들이 많았다. 박승주는 재의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도 종교와 음악의 밀접한 관계를 들며 신성한 음악인 범음(梵音)은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아, 범패·작법·사물 모두의 폐지를 주장한 한용운과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능화도 “화청고무(和請鼓舞)는 우아하게 보이지 않으므로 금지함이 마땅하지만 어산조(魚山調)도 그것을 따라서 광릉산(廣陵散)으로 하는 것은 애석하다”⁷⁾고 하여 범패까지 폐지된 데 따른 아쉬움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불교가 제도적으로는 배척당하면서도 민간은 물론 왕실과 지배층의 비호를 받으며 종교적 역할을 지속해온 것처럼, 재가 있는 한 범패나 작법은 꾸준히 맥을 이어왔다. 아울러 종교의례의 예능적·예술적 표현은 해당종교의 사상과 신앙 체계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종합예술적 특성을 지닌 불교의례 또한 불교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은 시대와 무관하게 언제나 중요시되어왔다.

전통 불교의례에 대한 조망이 새롭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신도들을 교화하는 신앙형태는 정토신앙·밀교신앙 등 불교의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 없고, 문화적 전통성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도 본격적으로 재인식⁸⁾하게 된 것이다. 근대 이후 불교의례가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 전개됨으로써

5) 송현주, 「근대한국불교 개혁운동에서 의례의 문제: 한용운, 이능화, 백용성, 권상노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6(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0).

6) 李法山, 「조계종 전통의식의 보존과 계승」, 『불교전통의식의 보존과 계승의 문제』, 범패시연 및 학술회의 자료(서울: 조계종 전통불교의식 보존연구회, 2004), p.15.

7) 이능화 지음, 위의 책, pp.240~241. “어산조도 그것을 따라서 광릉산으로 한다”는 말은 범패 특유의 훗소리·짓소리가 아닌, 화청 등의 민요조 위주로 바뀌었다는 의미이다.

8) 홍윤식, 「전통불교의식의 현황과 금후의 과제」, 『불교전통의식의 보존과 계승의 문제』, 앞의 자료, p.59.

예수재를 비롯한 불교의례의 실행양상과 내력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채 전승되어왔다. 모든 의례가 그러하듯이 예수재 또한 목적과 큰 틀의 의례체계는 같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통일된 예수재가 존재한 시대는 없었다. 사찰과 의례주체에 따라, 시대적 여건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지닌 것이 무형문화의 특성이자 전승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근현대 예수재의 다양한 실행양상을 살펴보고 예수재의 의례특성에 비추어 현재의 전승양상을 분석해, 불교의례이자 전통문화로서 예수재가 지니는 현재적 의미와 방향성을 조명하고자 한다.

II. 예수재의 실행시기와 윤달예수재의 성립

1. 예수재의 실행시기

현재 예수재는 윤달에 행하는 대표적인 불교의례로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예수재 관련기록에 윤달이라는 실행시기가 언급된 바는 없다. 다만 조선후기의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경기도 광주 봉은사(奉恩寺)에서는 윤달이 되면 장안의 부녀자들이 몰려들어 많은 돈을 불단[佛棚]에 놓고 불공을 드린다. 이 같은 행사는 달이 다가도록 계속된다. 이렇게 하면 죽어서 극락으로 간다고 믿어 사방의 노파들이 와서 정성을 다해 불공을 드린다. 서울과 그 밖의 다른 지방의 절에서도 이런 풍속이 많이 있다”⁹⁾고 하였다.

『동국세시기』에 ‘예수재’라는 표현은 없지만 불공을 올리며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풍습은 윤달예수재를 연상케 한다. 사후를 위해 미리 공덕을 닦는 불교의식으로서 예수재가 조선중기에 성행했고, 윤달에 사후극락을 비는 풍습이 조선후기에 성행했다면, 적어도 조선후기에는 ‘윤달’과 ‘예수재’가 결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예수재에 관한 근현대의 기록 가운데는 윤달이 아닌 평시에 치른 경우도 드물지 않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10년대의 예수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자.

조동윤(趙東潤)씨의 대부인 및 조동일(趙東晚)씨의 대부인과 천상궁(千尙宮) 등이 경비를 변비(辯費)하여 수일 전에 동대문 외 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에서 예수재(例修齋)를 실행하였다더라.¹⁰⁾

9) 『東國歲時記』 ‘閏月’條.

용선 큰스님께서 경술년 1910년도에 하동 지리산 칠불암에 해동제일 선원에 계셨어요. ...그 다음해에 서울에 올라가셔서 종로에 민가를 구입해서 수리 개조하고 대각사라 이름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몇 년마다 윤달이 올 때 생전예수재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¹¹⁾

앞의 내용은 1912년 1월 4일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로 평시에 치른 예수재이며, 뒤의 내용은 도문스님이 구술한 것으로 1910년대 대각사에서 치른 윤달예수재이다. 아울러 1960년~1970년대에는 윤달이 아닌 시기에 치르기도 하여,¹²⁾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윤달에 예수재가 설행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윤달의례로 정착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예수재는 윤달과 무관하게 성립되었고 우리나라에서 정착된 시기 또한 근대에 접어들면서부터이다. 그렇다면 본래 예수재를 설행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예수재가 윤달과 결합된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먼저 예수재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예수시왕생칠경(預修十王生七經)』¹³⁾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아난다여 만일또한 선남자와 선여인과 혹은비구 비구니와 천신사와 천신녀로
살아생전 이승에서 예수시왕 생칠재를 미리미리 힘을다해 정성스레 닦아가되
매달음력 초하루와 보름날에 두번걸쳐 기록하신 삼보전에 지성으로 공양하라¹⁴⁾

이에 따르면 예수재의 시기를 초하루·보름에 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많은 사찰에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정기법회를 열고 있는데, 이러한 초하루·보름 법회는 불교초기부터 대중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드러내어 참회하는 포살(布薩)의 형식으로 열었던 수행의식이다.

『증일아함경(增壹阿含經)』에 따르면 본래 포살의식은 매월 8일·14일·15일·23일·29일·30일의 육재일(六齋日)에 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인도의 신월제(新月祭)와 만월제(滿月祭)의 영향을 받아 초하루와 보름의 2회로 축소된 것이다.¹⁵⁾ 이처럼 예수재

10) “趙夫人의 例修齋”, 「每日申報」 明治45年 1月 4日. 여기서는 ‘例修齋’라 오기하였다.

11) 도문스님·법등스님 대담, 「생전예수재: 불심 도문 큰스님께 묻다」, 『해인』 325, 2009, p.7.

12) 성정환, 「조계사 생전예수재의 역사와 의의」, 『淨土學 研究』 23(서울: 韓國淨土學會, 2015), p.140.

13) 당나라 말인 9~10세기경 장천(藏川)이 찬술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14) 동봉정휴, 『일원곡(一圓曲)』 권7(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2003), p.214.

는 일상적 수행과 참회의 의미 속에서 행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재는 자신의 사후공덕을 살아있을 때 미리 짓는 주체적 의례이다. 사후의 존재를 대상으로 한 천도재는 타행(他行)의 의례일 수밖에 없지만, 예수재는 살아있을 때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치르는 자행(自行)의 천도재인 것이다.¹⁶⁾ 따라서 사후를 내다보며 참회하는 수행의식이기에 특별한 때를 두지 않고 일상적으로 예수(預修)하도록 한 뜻을 담고 있다. 예수재가 오늘날 초하루·보름 법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속에서 닦아나가는 예수재의 참뜻을 되새기게 한다.

2. 윤달과 예수재의 결합배경

다음으로 이러한 일상의 예수재가 윤달의 대표적인 의례로 정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자. 본래 윤달과 무관한 예수재를 윤달에 치르게 된 의미에 주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는 예수재의 전승맥락과 특성 또한 드러날 것이다.

첫째, 민간에서는 윤달이 덤으로 주어진 시간이므로 인간세상을 관장하는 신들도 감시를 천다고 여겼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소 택일이 따랐던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일을 윤달에 거리낌 없이 행했을 뿐만 아니라, 저승문이 열린다고 보아 사후극락에 대한 기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성을 밟는 답성(踏城) 풍습 또한 ‘윤달에 성을 세 바퀴 돌면 저승길이 트여 극락에 간다’는 믿음과 결합되어 있고, 고창 모양성(牽陽城)의 진입로는 극락문이라 불린다. 따라서 윤달의 불공에서도 극락왕생 기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살아있을 때 사후를 위해 올리는 예수재가 윤달과 결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을 감시·심판할 신이 없어 극락을 갈 수 있다’는 담론에 따른다면, 예수재에서는 명부세계의 심판자인 시왕(十王)의 부재를 전제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예수재에서는 오히려 시왕을 청해 정성을 쏟고 있어 모순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불교 예수재의 시왕모시기가 우선되고 이후 윤달과 결합되었기 때문이지만, 민간의 관점에서 보면 시왕이 지닌 성격으로 인해 모순 없이 복합적 수용이 가능하다. 정의의 편에서 있지만 인간에 대한 심판자인 시왕은 공경과 두려움의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내세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심판자가 없다’는 윤달담론에 우선하여 시왕을 모실 수밖에 없고, 피하고 싶은 심판자일수록 더욱 정성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⁷⁾ 이에 시

15) 정각(문상련), 『한국의 불교의례』(서울: 운주사, 2001), pp.190-191.

16) 구미래, 「생전 예수재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淨土學 研究』 23, 앞의 책, pp.50-51.

왕은 1년 열두 달과 육십갑자를 각기 나누어 관장한다고 보면서, ‘윤달에는 시왕들이 한 곳에 모여 휴가를 즐기는 시기이므로 이때 정성껏 공양을 바침으로써 업장을 소멸 받는다’는 담론도 생겨나게 되었다.

둘째, 윤달을 신성한 시간 또는 비정상적 시간이라 여겨, 이 기간에 복을 짓고 액을 막는 종교적 행위로 불교의례가 성행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¹⁸⁾에는 윤달이면 궁궐에 많은 스님을 모시고 백좌도량(百座道場)을 열거나 대장경을 경찬(經讚)하며, 액을 물리치는 소재도량(消災道場) 등을 베풀었다. 또 왕이 사찰에 행차하여 불공을 올리고 선왕의 능을 배알하는가하면 사면령을 내려 죄수를 풀어주고, 노인과 소외된 이, 의로운 이들에게 음식과 물품을 지급하였다. 이는 모두 윤달이라는 비일상적 시간을 안전하고 복되게 맞으려는 노력으로, 불교는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중요한 의지처가 되어왔다. 지금도 윤달이면 절을 찾아 불공을 올리거나, 가사불사·삼사순례 등 광범위한 신행행위를 실천하고 있어, 특별하고 불확실한 시간에 대한 경계심을 종교적 시간으로 승화시켜온 셈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의례를 통해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수록재·영산재·예수재 등 천도의례가 발달하였고, 예수재 또한 일상의 수행의례로 행해지기보다는 ‘망자의 천도’와 대치되는 ‘산자의 천도’를 위한 의례로 선행되었다. 생전에 미리 사후공덕을 짓는 예수재는 극락왕생 불공이 성행한 윤달과 자연스레 결합될 가능성도 커진 셈이다. 약 3년마다 돌아오는 윤달의 주기 또한 대형의례를 연례적으로 치르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적합했을 법하다.

따라서 ‘사후공덕’을 기반으로 하는 가운데, 일상의 수행의례라는 성립 당시의 성격보다는 연례적으로 또는 몇 년마다 행하는 의례로 선행된 것이 우리나라 전통예수재의 모습이었다. 아울러 ‘윤달’과 ‘불교의례’의 결합, 나아가 ‘윤달의 극락왕생 기원’과 ‘예수재’가 결합되면서 어느 시기부터인가 점차 윤달예수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 하겠다.

17) 구미래, 「윤달의 민속심리와 주술·종교적 특성」, 『비교민속학』 36(서울: 비교민속학회, 2008), pp.348-349.

18) 『高麗史』 熙宗 辛未7(1211), 忠烈王 甲申10(1284)·丁亥13(1287)·己丑15(1289)·癸卯29(1303), 恭愍王 壬辰元(1352)·辛亥20(1371) 등과 『高麗史節要』 卷9 仁宗恭孝大王一(1126), 卷10 仁宗恭孝大王2(1137), 卷11 毅宗莊孝大王(1148), 卷29 恭愍王4(1371) 등.

Ⅲ. 죽음준비문화와 결합된 축제적 예수재

1. 수의 입고 잔치처럼 치르다

근현대 예수재의 실행양상을 살펴보면, 민간의 죽음준비문화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대표적인 죽음준비문화로 생전에 수의를 만드는 풍습을 꼽게 된다. 고구려인들이 혼인을 하면 장사지낼 때 입고갈 옷을 미리 만든 것처럼¹⁹⁾ 이른 시기부터 연로한 부모의 수의뿐만 아니라 자신의 수의를 미리 마련해두었던 것이다. 목숨 ‘수(壽)’자를 쓰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수의를 미리 만드는 것은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가 가장 커서, “수의를 미리 만들어놓으면 장수한다.”는 담론도 생겨나게 되었다.²⁰⁾ 불가항력의 죽음을 극복하고 대처하는 기제로서, 오히려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긍정적 수용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에 거제도에서 행한 예수재 사례를 살펴보자.

... 노인들은 모두 준비해온 수의를 입는다. 이승을 떠나 저승길에 갈 때 입고갈 옷들을 윤달 든 그달에 준비해두었다가 예수재 날 미리 저승길에 가보면서 입고, 다시 고이 접어두었다가 진짜 가시는 날 자손의 손에 의해 입혀지게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수의’ 하면 ‘삼베옷’ 하던 통념을 깨고 아들딸 혼인식장에 입고 가는 것처럼 울긋불긋 비단옷이 삼베옷 사이를 수놓았다. 그리고 수의를 입은 노인들 모두가 회색이 만만하였던 것이다. “죽을 때 좋은 옷 입고 가야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좋은 집에 태어난다”, “죽을 때 즐겁게 죽어야 저승길이 순탄하며 이생에 다시 온다”며 덩실덩실 춤판이 벌어졌다. 아마도 불교가 의식의 변화에 기여한 점이라면 ‘죽을 때 즐겁게 죽어야 한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했다.²¹⁾

동참재자들이 너도나도 수의를 입고 예수재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 또한 마치 잔치처럼 흥겨웠음을 알 수 있다. 글쓴이가 집필당시로부터 10여 년 전에 보았다는 이 예수재는, 과불을 모시고 상단·중단·하단을 장엄하게 차린 채 범패와 작법을 하는 스

19)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20) 구미래,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p.25.

21) 김희균, 「예수재란 무엇인가: 업장소멸 모두 하라, 살아있는 영혼 정화시키는 천도재」, 『대중 불교』 125(서울: 대원사, 1993), p.67.

님들과 수많은 동참재자들이 함께하여 오전 9시부터 자정을 넘길 때까지 여법하게 치른 것이었다.

예수재가 살아있을 때 미리 사후를 대비하는 의례이기에, 죽은 뒤 입기 위해 마련해 놓은 수의가 등장하는 것은 민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따라서 수의를 미리 장만해놓은 노인은 수의를 갖추어 예수재에 참여했을 뿐더러, ‘좋은 옷 입고 죽어야 좋은 집에 태어난다’, ‘즐겁게 죽어야 저승길이 순탄하다’는 생각으로 비단 옷을 차려입고 죽음을 대비하는 자리를 축제처럼 맞은 데서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지혜를 엿보게 한다.

이러한 모습의 예수재는 거제도만이 아니라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에 경남 밀양에서 치른 예수재의 한 장면을 살펴보자.

예수재를 하면서 큰스님이 말씀하셨죠. “오늘은 내 전생 업을 갚는 날이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여러분들 잔칫날이니 흥에 겨우면 춤추셔도 됩니다. 오늘만큼은 부처님 앞에서 춤춰도 좋은 날입니다.” 그러자 90세가 넘는 할머니가 막 나와서 기쁘게 춤을 추셨는데, 70세 된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모두 환희심이 느껴지면서 ‘아, 이게 바로 재를 하는 목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²²⁾

자신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자리에서 마음껏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러한 축제성은 죽음을 대하는 전통적 성격을 드러낸다. 옛 노인들은 살아생전에 자신의 수의를 만드는 자식들을 기특하고 흡족하게 여겼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사람들도 같이 수의 만들기를 거들다보면, 음식도 장만하고 농담도 해가면서 즐거운 시간이 된다. 죽음을 예비하는 자리에서 슬픔이나 엄숙함은 찾아볼 수 없고 마치 작은 잔치처럼 떠들썩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은 우리민족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는 이러한 예수재가 무속의 죽음준비의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망자를 위해 치르는 오구굿을 산 자에게 적용하여 치르는 ‘산 오구굿’을 들 수 있다. 산 오구굿은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지역에서 널리 행하는데, 다른 굿보다 불교적 색채가 더 강하여 굿을 주재하는 세습무집단이나 기주들이 불교의식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²³⁾이다.

산 오구굿의 기주(祈主)는 대개 노인으로서 자신의 죽음을 대비해 굿을 의뢰한다. 이들

22) 제보: 밀양 광제사 승범스님(40대 중반), 2015년 5월 6일.

23) 박경신, “산 오구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편』(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9), p.388.

은 사람이 죽으면 오구곳을 해야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믿어 자신이 죽으면 후손들이 곳을 치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후에 자신의 곳을 열어준다는 확신이 없기에 살아 있을 때 직접 행함으로써 오구곳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²⁴⁾ 그 절차도 오구곳과 유사하여 큰곳의 열두거리를 모두 행한다. 산 오구곳의 구조를 보면 신들을 청해 축원한 다음 영혼을 천도하고, 이를 축하하는 놀이마당을 거쳐 ‘기주의 극락왕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²⁵⁾ 신을 모시고 망자를 저승으로 잘 보내주려는 오구곳이 천도재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듯이, 예수재의 영향으로 산 오구곳을 치르게 된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예수재와 산 오구곳은 상호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예수재가 산 오구곳을 생겨나게 했듯이, 대중의 간절한 바람을 구체화하기 위해 곳이 지니고 있는 토착적·본연적 심성이 예수재에 반영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외에 괘불을 모시고 치르는 사찰마당은 대자연의 성전(聖殿)이 되어 고대 제천의례(祭天儀禮)와 같은 면모를 지닌다. 그러한 공간에 모신 거대한 부처님은 종교와 무관하게 중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위대한 존재이게 마련이다. 의례공간을 화려하고 장엄하게 꾸민 가운데 성스러운 음악과 몸짓으로써 대중의 발원을 담아 치르는 의례이기에, 해방성과 신명성의 축제적 성격을 띠게 마련인 것이다.

2. 반야용선을 탄 사람들

예수재에서 극락왕생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는 반야용선(般若龍船)이다. 반야용선은 번뇌에 찬 사바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인 피안의 극락세계로 건너가는 상징적 배를 말한다. 그 세계는 반야의 지혜에 의지해서 건널 수 있고, 불법을 수호하는 용이 이끄는 가운데 강을 건넌다는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극락왕생을 비는 불자들의 염불에 즐겨 등장할 뿐만 아니라, 사십구재와 같은 천도재를 지낼 때 반야용선의 조형물을 사용하면서 망자의 위패를 용선에 실어 천도재의 공덕으로 극락왕생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예수재에서도 사찰마다 정성 들여 거대한 반야용선을 조성하여 법당 안팎의 중심공간에 배치하게 된다. 그런데 반야용선에 망자의 위패를 싣는 것이 아니라, 가마형태로 만들어 동참자들이 직접 타고 가는 일련의 예수재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현재도 전승되고 있는데,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재에서 서방정토로 가는 반야용

24) 위의 글, pp.387-388.

25) 구미래, 앞의 책(2015), pp.39-40.

선을 타고 탑을 돌거나 절 마당을 도는 것이다. 망자를 위한 천도재에서 반야용선에 위패를 신는다면, 산자를 위한 예수재에서는 동참재자가 타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 또한 주로 경남지역에서 중요한 의식으로 여기며 뚜렷한 전승흐름을 지니고 있다. 앞서 거제도의 예수재 사례에서도 “... 준비해두었던 가마에 한 사람씩 타고 마당을 한 바퀴씩 도는데 그것이 바로 저승엘 다녀오는 형식”²⁶⁾이라고 하였다.

밀양 광제사(廣濟寺) 예수재의 경우 이를 용선작법(龍船作法)이라는 재차로 설행하면서 반야용선을 타고 범성계와 함께 범당 마당을 돈다. 동참재자를 빠짐없이 태워 한 바퀴씩 돌다보니 용선작법에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설판재자가 먼저 1인용 가마에 타고 돈 다음에 중판재자가 돌고, 이어 동참재자가 4인용을 타고 돈다. 그런데 설판재자와 중판재자는 부처님과 왕만이 탈 수 있다는 1인용 연(籠)을 태웠으나, 이들 또한 반야용선을 더 선호한다는 것이다.²⁷⁾ 그만큼 한국불자들에게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반야용선의 의미가 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밀양 영산정사(靈山精舍)의 예수재에서도 ‘극락의식’이라 하여 설판재자를 중심으로 반야용선을 타고 마당을 도는 의식을 행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근래 죽음준비의 일환으로 행하는 ‘입관의식’을 재차로 치르고 있다. 동참재자들이 한 명씩 관에 잠시 들어가 눕도록 함으로써 죽음을 맞아 스스로 살아온 날들에 대해 참회의 시간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입관의식에 이어 ‘상여행렬’을 행하는 점도 독특하다. 스님들이 짊어진 거대한 상여가 앞서고 신도들이 뒤따름으로써 입관을 마친 다음 영혼은 상여에 실려 가고 몸은 그 뒤를 따라가는 의식이라 한다. ‘극락의식’은 예수재의 맨 마지막에 설행하고 있다.²⁸⁾ 예수재를 치르는 가운데 실제 죽음과 함께 이어지는 의식을 순서대로 행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죽음을 체험하고 준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가하면 반야용선을 타는 모습은 경남지역에서 전승되는 산 오구굿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산 오구굿에서는 반야용선의 개념이 두 차례 등장한다. 굿의 핵심에 해당하는 영산맛이를 할 때 종이로 만든 반야용선에 망자의 위패를 실어 ‘길베’ 또는 ‘극락줄’이라 부르는 긴 무명 천 위에 올려놓고 용선을 좌우로 밀면서 길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어서 망자가 극락으로 갔음을 기뻐하는 마당뺨이에서는 굿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가운데 기주들을 가마에 태워 마당을 돌게 된다. 이를 ‘극락춤’이라 하여 기주가 무사히 극락왕생을 하게 되었음을 축하하는 뜻을 담고 있다.

26) 김희균, 앞의 글, p.67.

27) 제보: 밀양 광제사 승범스님(40대 중반), 2015년 5월 6일.

28) BTN 특집프로그램 “밀양 영산정사 생전예수재”, 2012. 5. 16 방영.

이처럼 예수재나 산 오구곳에서 타는 것은 그것이 연이든 단순한 가마이든, 모두 관념적인 반야용선을 상징한다. 그들이 탄 반야용선은 의례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뜻한다. 의례절차를 한 단계씩 거쳐 극락으로 가는 배를 탔으니 예수재가 기쁘고 환희로운 축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IV. 복합적 양상으로 설행된 예수재

1. 의례의 결합, 생사의 결합

수륙재(水陸齋)가 망자를 위한 천도재라면, 예수재는 산자를 위한 천도재에 해당한다. 두 의례가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에 어느 한 쪽의 의례라 하더라도 망자와 산자의 복락을 모두 기원하는 것은 합당하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수륙재를 지내면서 예수재에 사용되는 고사단(庫司壇)을 차리거나 동참재자들을 축원하듯이, 예수재를 치를 때 살아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선망조상과 일체 고히운을 위한 의식을 함께 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예수재를 수륙재와 함께 행한 사례가 많고 영산재와 함께하기도 하였다. 특히 영산작법(靈山作法)은 수륙재와 예수재를 비롯한 여러 의례와 합설되면서 본재(本齋)를 치루기에 앞서 행하는 재전작법(齋前作法)이자 상단권공의 하나²⁹⁾로 설행되었다. 이후 영산재가 독립된 의례로 성립된 뒤에는 ‘영산작법과 예수재’의 결합만이 아니라 ‘영산재와 예수재’가 결합되기도 한 것이다.

1973년 9월의 경향신문에 실린 「불국사 복원대법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자.³⁰⁾

경주 불국사 회향대법회가 16일 10시 3만여 불교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대법회에는 불교조계종 종정 고암(古庵) 스님, 총무원장 손경산(孫慶山) 스님 등 전국의 큰스님들이 모두 참석했다. 삼귀의례로 시작된 이날의 대법회는 착공한 지 만3년6개월 만에 복원돼 불국사의 새 모습에 황홀한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 보살계(菩薩戒)와 수륙재(水陸齋), 그리고 예수재(豫修齋) 등이 베풀어져 호국의 도량으로 다짐했다. 특히 이날 대법회에는 우리나라 불교음악의 진수인 영산재(靈山齋)를 올렸는데, 운공(雲空)·

29) 鄭明熙, 「儀式集을 통해 본 掛佛의 圖像의 變용」, 『불교미술사학』 2(경남: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4), p.11.

30) “불국사 복원대법회”, 『경향신문』 1973년 9월 17일자.

만해(萬海)스님 등 15명의 인간문화재급들이 총출연하여 사라져가고 있는 서울·경남 지방의 영산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참석한 불교신자들을 감명시켰다...

이에 따르면 불국사 회향법회에 보살계와 함께 수록재, 예수재, 영산재가 나란히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환희롭고 중대한 법회이기에 일체영가를 위한 수록재와, 산자들이 공덕을 짓는 예수재와, 여법한 법석의 영산재를 모두 행한 것이다.

불국사 회향법회가 특별행사에 해당한다면, 연례적·주기적으로 행하는 의례를 합설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조계사(曹溪寺)에서는 1976년 윤달과 1979년 윤달에 예수재와 수록재를 같은 날 또는 이틀에 걸쳐 연이어 봉행하였고, 봉은사(奉恩寺)에서는 1984년과 1990년에 예수재와 수록재를 동시에 치른 기록³¹⁾이 전한다. 근래에도 마산 백운사(白雲寺) 등과 같이 윤달에 예수재를 지낼 때 수록재와 함께 지내는 사찰이 많고, 단양 구인사(救仁寺)의 경우는 윤달예수재를 수록재·영산재와 함께 지내고 있다.

수록재와 예수재가 함께 설행된 것은 오랜 역사를 지녔다. 예수재의문인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의 편찬과 회편이 수록재의문과 유사하고, 『범음산보집(梵音刪補集)』에는 수록재의 날짜별 순서로 두 번째 날 오전에 영산작법을 행하고 한편에서는 예참작법을 하며,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는 예수작법을 의문대로 하고 시식을 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유사한 의례의 편찬전통을 전승하고 있는 점은 의례의문의 간행정신처럼 되어 후대에 이어지고 있다.³²⁾

또한 예수재는 산자의 예수에 초점을 둔 의례인데 죽은 자를 위한 의례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은 본래 뜻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먼저 예수재에 망자를 모실 수 있는 근거로 『예수천왕통의(預修薦王通儀)』와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를 살펴보자. 사자를 청해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단계는 소청사자(召請使者)·안위공양(安位供養)·봉송사자(奉送使者)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 몇 가지 문서가 등장한다.

첫째는 사자를 청하면서 올리는 <사자소(使者疏)>이고, 두 번째는 시왕을 비롯한 명부성중에게 보내는 초청장 성격의 <행첩소(行牒疏)>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서는 명부성중이 도량에 강림하기를 다시 한 번 발원하는 <청장(請狀)>과 <물장(物狀)>으로, 사자를 떠나보낼 때 염송하게 된다. 마지막 두 문서에서 <청장>이 명부성중을 초청하는

31) 「대한불교」 1976년 8월 8일자, 1979년 5월 15일자, 1982년 4월 4일자 등: 성칭환, 앞의 논문, pp.144-145에서 재인용.

32)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회편과 차서와 상례화를 중심으로」, 『淨土學 研究』 23, 앞의 책, pp.19-21.

내용을 담고 있다면, <물장>은 성중을 위해 마련한 공양물의 물목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물장’이라는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차와 과일, 메와 떡, 금전과 은전, 운마와 낙타 등 청정한 공양물을 마련했음을 밝히면서 범회에 강립하여 정성스런 공양을 받을 것을 청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청장>과 <물장>에서 명부성중에게 기원하는 목적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자소>·<행첩소>·<청장>의 앞부분에는 ‘현증복수(現增福壽) 당생정찰지원(當生淨刹之願)’라는 구절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재자들이 예수재를 열면서 발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현세에서는 복과 수명을 늘이고 내세에서는 정도에 나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청장>에는 이 구절의 앞에 ‘특위기신(特爲己身)’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예수재는 살아있는 이들의 공덕 쌓기임을 잘 알고 있건만 <사자소>·<행첩소>와 달리 ‘특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말을 구태여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물장>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물장>에서는 ‘현증복수 당생정찰지원’이라는 구절 대신 ‘왕생정찰지원(往生淨刹之願)’이라 쓰고 그 앞에 ‘특위모군모씨영가(特爲某郡某氏靈駕)’라는 말을 덧붙인다. 내용을 이어보면, 특히 어느 곳 어느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함이라는 뜻이다. 예수재가 산 자들뿐만 아니라 영가들을 위한 의례이기도 함을 분명히 밝히는 대목이다. 이를 명부세계를 향해 고하는 <청장>과 <물장>의 두 문서에 구분하여 적시함으로써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가피를 기원하게 된다.³³⁾

의례의문에 담겨있듯이, 심정적으로도 부처님이 증명하는 가운데 명부세계의 존재들을 모시고 자신의 사후공덕을 짓는 여법한 자리에 선망조상의 영가와 유주무주 고히의 발복을 함께 바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산 자의 예수’보다 ‘망자의 천도’에 무게중심을 둘 경우 본말이 전도되고 예수재의 특성이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실행되는 예수재에서 영가위패를 모시는 데 큰 비중을 두게 된 것은, 결국 예수재가 수록재·영산재와 결합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영산작법과 예수재의 결합’이라면 오전의 사시마지 시간을 중심으로 영산작법을 하고 오후에 예수재를 치르겠지만, ‘영산재와 예수재의 결합’이라면 사정을 달라진다. 영산재는 그 자체로 ‘영산법회와 무차천도’의 총체적 독립의례기에 영가천도의 의미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재가 일체영가를 천도하는 수록재 및

33) 慧日明照, 『예수재』(에세이퍼블리싱, 2011), pp.313-321 ; 구미래,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복 짓기』(서울: 아름다운 인연, 2014), pp.136-143.

영산재와 결합되면서, 예수재의문에 언급한 이상으로 망자의 문제에 치중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2. 개인을 위한 예수재

예수재는 합동으로 치르는 것이 관례이지만, 개인 또는 몇 명을 위한 예수재도 설해 되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0년 5월에 상락향수도원(常樂鄉修道院: 불교통신대학 중앙교육원)에서 세 사람을 위한 예수재가 설해되었다. 「예수재 참관기」³⁴⁾라는 제목으로 기록한 이 예수재는 윤달이 아닌 평시에 3일 동안 행한 것으로, 글쓴이는 첫날 축사를 맡았다. 이 내용은 25년 전 예수재의 실제 설해모습을 비교적 상세하게 담고 있어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단·장엄】 상중하 3단에 각 3단씩 9단을 배열함. 각단에는 꽃, 향, 등축, 다과, 과일, 금은전, 지필묵 등이 놓여 있고, 각단을 표시하는 각종 번을 오색찬란한 천과 종이로 써서 걸고, 법당 밖에도 천수다라니와 각종 번을 걸어 장식함.

【제1일 : 입재 등】 오전 10시~오후 1시까지 입재하여 3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발원문, 경과보고, 축사, 삼보통청과 시식, 사홍서원을 행함. 오후에는 지장경을 완독하는 지장기도를 행하고, 장엄하게 모신 영단을 향해 선망부모를 위한 공양으로 시식(施食)을 올림. 마지막은 시왕마지로 시왕을 향해 공양을 올리고 유주무주 고히를 위한 미타경을 독송함.

【제2일 : 참회정진】 새벽 4시경에 지장정근 3천 회를 하고, 금강경 1독으로 영가독송을 행함.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국혼청을 하여 역대임금, 위국열사, 충의장졸, 무명용사를 위해 재를 올림. 오후 3시~5시에는 고사단·사자단·마구단에 시식함. 저녁에는 대예참을 행함.

【제3일 : 회향법회】 오전에 108 대참회를 하고, 영단을 향해 금강경·미타경·지장경을 독송함. 오후에 10여 명의 어산이 피리·젓대·징·북 등을 울리는 종합의례로 작법을 하며 삼보공양, 명부권공, 시식회향 등을 올림. 반야용선을 타고 주위를 돌며 연(輦)을 돌림. 마지막으로 상락향수도원 한정섭 원장이 법문을 함.

이 예수재는 미국에 살던 한 할머니가 죽기 전에 예수재를 단독으로 한번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원에 따른 것이다. 실제 3인을 대상으로 한 예수재였으므로 친지여성 2인

34) 이민환(독경법사), 「예수재 참관기」, 『세계불교』 7(서울: 세계불교사, 1990), pp.37-40. 1990년은 윤5월이 들어, 양력 6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가 윤달에 해당한다.

과 함께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큰절에서 하면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조용히 법식대로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이곳에서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2일에 참회정진을 집중적으로 행하고 3일에 108 대참회를 하는 등 참회에서 출발하여 수행으로 이어지는 예수재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향 때는 주인공들이 반야용선을 타고 주변을 돌아, “마치 선녀 신선이 봉래산을 유람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였다”고 기록하였다.

경남지역에서도 십 수년 전까지 신심이 깊고 경제력이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개인을 위한 예수재가 드물지 않게 행해졌다. 하나의 사례를 보면,³⁵⁾ 약 15년 전 밀양에서 할머니를 위한 개인 예수재를 열었는데 가족이 동네노인들을 모시고 당시 1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들여 성대하게 치렀다. 아들이 두 차례의 백일기도로 사업에 성공하자 기도효험을 본 것이라 하여 어머니 예수재를 크게 해드린 것이었다. 이때 자식들이 어머니를 연에 태운 채 절을 돌고 동참한 다른 노인들도 모두 태워드리면서, 주인공은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을 위한 예수재에서는 주인공이 반야용선이나 연을 직접 타고 정토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적극 구현했음을 알 수 있다.

예수재의 개별화는 설판재자의 능력이나 요청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며 오늘날에도 열려있다. 망자를 위한 사십구재(四十九齋)에서 많은 작법스님을 모시고 영산재 방식으로 치르기도 하듯이, 산자를 위한 예수재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여법하게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재를 비롯한 영산재·수륙재 등에서 설판재자(設辦齋者), 중판재자(中辦齋者), 동참재자(同參齋者) 등으로 자신의 역량에 맞게 보시규모를 구분하고 설판재자들이 대표 격으로 위패를 봉안하는 등의 일을 맡게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굿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산 오구굿 또한 경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여럿이 기주가 되어 공동으로 치르지만, 한 사람이 기주가 되는 개인 산 오구굿도 있는 것이다.

V. 예수재의 의례적 특성과 전승양상

오늘날 설행되는 여러 예수재에서 서로 다른 요소를 찾아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예수재가 지닌 의례목적에 부합하는 요소와 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예수재의 목적과 특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의례 요소를 네 가지로 간추려보았다. 이러한 핵심요소를 다루는 가운데 현재 설행되는 예수

35) 제보: 밀양 광제사 승범스님(40대 중반), 2015년 5월 6일.

재의 양상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1. 예수재의 독자적 삼단체계

예수재에서는 ‘예수9단’이라 하여 위상에 따라 9개의 단으로 구분한다. 상중하의 삼단에서 상단은 증명단이 되고, 중단이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며, 하단은 부속단으로 삼는다. 상단은 다시 상상단·상중단·상하단, 중단은 중상단·중중단·중하단, 하단은 하상단·하중단·하하단으로 나누어 9단이 되는 것이다.

예수재는 살아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례이기에, 여기서 하단에 모시는 하위(下位)의 존재는 영가가 아니라 명부세계에서 파견된 여러 존재들이 된다. 산 자들의 사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부성증을 모시고 지전을 바치는 예수재에서, 명부와 현세를 오가거나 창고관리를 맡은 존재들이다. 따라서 불보살·신중·영가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삼단체계와 달리 작동하면서 예수재의 의례목적에 달성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망자 부각, 영가위패 부각’과 ‘관욕(灌浴)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예수재의 삼단과 위계에 혼돈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먼저 망자가 부각됨으로써 실제 예수재의 삼단체계에서 ‘하단존재=영가’라는 의미가 고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욕에 대해 살펴보자.

예수재에서는 본래 상단과 중단의 관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단에서는 관욕을 하지 않는다. 하단관욕이 없는 것은 이들은 예수재의 부속단에 모신 존재들로 인간의 일에 직접 관여하여 화복(禍福)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양을 올리며 지극히 감사하되 성스러운 존재를 대상으로 행하는 관욕은 하지 않는다.

또한 예수재를 비롯해 불교의례에서 상단과 중단에 관욕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석가탄신일에 탄생불을 대상으로 하는 욕불(浴佛)·관불(灌佛)처럼 성스러운 존재를 맞는 정화의식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씻지 않아도 그 자체로 성스러운 몸이지만 구태여 관욕을 하는 것은, 불보살의 강림을 가시화하여 중생의 근기에 맞추기 위한 방편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근래 행하는 예수재의 경우 상단과 중단 관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그 요인으로, 먼저 예전에 비해 점차 의례시간이 짧아지다보니 불보살과 성증은 관욕이 특별히 필요한 존재가 아니므로 우선적으로 생략할 부분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나라 불교의례에서 관욕은 주로 영가를 대상으로 생전의 업을 씻어주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관욕=영가관욕’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점차

‘중생이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생각까지 싹트게 되었다.³⁶⁾

예수재 관육의 경우도 본래 해야 하는 상단·중단 관육은 하지 않고, 영가를 대상으로 한 관육은 하고 있다. 예수재에서 영가관육을 하는 것은 산자를 위한 예수의 의례라 하더라도 일체영가의 천도를 비는 절차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산재와 결합된 경우 무차천도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관육→천도’로 이어지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재의 삼단체계의 하위존재가 심정적 영가로 연결되면서, 예수재 설단의 의미와 특성이 조금씩 희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는 시왕

예수재를 예수시왕생칠재(預修十王生七齋)라고도 하듯이, 예수재는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의례이기 때문에 사후세계를 다스리는 시왕이 주 의례대상이 된다.

예수재의 중단성중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상단에는 시왕을 비롯해 도교에서 지옥의 신들을 총괄하는 풍도대제(酆都大帝), 천상의 선관인 하원지관(下元地官)을 모시고, 중중단에는 26위의 관관, 37위의 귀왕, 2부동자(二符童子)와 열두 사자를 모신다. 중하단에는 종관(從官)을 중심으로 7위의 영관(靈官)과 부지명위(不知名位)의 관리들을 모신다. 마지막에 ‘부지명위’를 두어 명부세계에 근무하지만 이름을 모르는 말단관리까지 빠짐없이 거론하였다. 예수재가 사후에 만나게 될 심판자적 존재들에게 미리 기도를 올리며 참회하는 성격의 의식임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다.

『예수천왕통의』에는 예수재의 유래로 시왕과 그 권속들에게 재공(齋供)을 베풀게 된 내력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북인도 마갈타국의 병사왕(瓶沙王)이 25년간 49번에 걸쳐 예수시왕생칠재를 올렸으나 어느 날 갑자기 저승사자에게 잡혀가 명부의 옥에 갇히게 된다. 왕이 자신을 잡아온 연유를 물으니, 명부시왕에게 49회나 공양을 올린 은혜는 깊지만 종관과 권속들이 공양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에 왕은 자신이 종관의 명목을 몰라서 그리된 것이라 사정하여 총 259위의 종관명목을 받고 돌아와, 예수시왕생칠재를 지낼 때마다 한 분 한 분 소청하며 법식에 따라 공양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부성중을 섬기는 중단의식은 예수재의 의례목적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증명단의 역할을 하는 상위의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의식을 행하고 나서, 소청명부(召請冥府)로 이어지는 중단의례를 긴 시간에 걸쳐 행하게 된다.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에

36) 구미래, 「천도재에서 관육의 상징성과 수용양상」, 『淨土學研究』 22(서울: 韓國淨土學會, 2014), pp.75-80.

7개의 각 편을 두고 있듯이 가장 많은 단계를 할애하여 정성을 들이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영산작법과 합설하여 하루에 예수재를 치르는 경우, 상대적으로 명부시왕과 중위의 존재들을 칭해 모시는 중단의식을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다. 영산작법에 오전을 할애하고 예수재는 오후의 한나절로 축약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수재가 지닌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행하기보다는, 영산작법과 영가천도에 많은 비중을 둔다면 예수재의 특성이 일반화될 우려가 있다.

3. 하단 명부권속의 부각

예수재는 하단의 존재인 명부권속이 부각되면서 의례목적이 뚜렷해진다. 하단은 ‘부속단’이라 하여 여러 가지 굿은일을 처리하는 명부권속들이 의례대상이 된다. 명부창고를 지키는 고사(庫司), 지상과 명부를 오가는 사자(使者), 말·낙타가 소속되어 있어, 예수재에서도 고사단(庫司壇)·사자단(使者壇)·마구단(馬廐壇)을 설치하고 이들을 칭해 공양하고 있다.

본격적인 예수재의 시작은 소청사자(召請使者)에서부터이다. 사자를 칭해 공양을 올린 다음 돌려보내는 이 단계는 예수재의 성격과 의례목적은 뚜렷이 담고 있다. 예수재는 사후를 위해 자신이 지은 업을 참회하면서 사후심판자인 명부성중을 칭해 업을 깨끗이 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이들이 예수재에 강림하도록 청하기 위해서는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초청장과 문서를 전달하는 사자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보는 것이다.

이때 모시는 사자는 태어난 연월일시를 각각 다스린다는 연직·월직·일직·시직의 사직사자이다. 이들 사자를 청하면서 읊는 <사자소(使者疏)>의 내용을 보면 예수재에서 다른 성중보다 사자를 먼저 모시는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또한다시 부질없는 세속적인 몸으로써 까마득한 저승세계 과연어찌 할것인가
성자들과 현자들을 칭하고자 하는이는 모름지기 사자힘을 빌려야만 할것이라
그러므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호속에 무탈하게 거주하는 대소설관 재자들이
이생에선 복과수명 더욱더욱 늘이웁고 다음생엔 미타정찰 왕생하기 원이오매
명부세계 시왕전에 살아생전 칠칠재를 여법하고 정성스레 닦아가려 하나이다...

명부세계 문서들고 질풍처럼 다니시되 천둥처럼 오셨다가 번개처럼 가시도다
풍겨오는 모습이여 너무나도 당당하고 거룩하신 그힘이여 헤아리기 어려워라

받은명을 행하심에 때를넘지 않으시고 사사로움 없는마래 너무나도 깔끔해라
 다만오직 바라오니 지극한덕 부찰이여 신묘자비 바라오니 광명으로 내리소서...37)

이처럼 명부성증을 청하기 위해 사자의 힘을 빌려야 함을 알리고, 복된 현생과 내생을 위해 살아생전에 지성으로 닦아가고자 예수재를 열게 되었음을 밝힌다. 아울러 온갖 공양물을 차려놓고 사직사자를 간절히 청하면서 이들 사자의 모습과 행동을 칭송하는 내용이 나온다. 문서를 들고 명부세계를 오가는 모습은 마치 질풍처럼 천둥번개처럼 신속하고 당당하여 거룩하기 그지없고, 명을 받으면 때를 넘기거나 사사로움 없이 깔끔하게 일을 처리한다고 묘사함으로써 사직사자야말로 관리의 최고덕목을 지닌 셈이다.38)

이후 상단과 중단의 성증을 청해 모신 다음에는 소청고사(召請庫司)가 진행된다. 고사는 민간에서 ‘고지기’라 부르듯이 창고를 지키는 직책이며 저승의 돈과 경전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은 존재들이다. 따라서 동참재자들이 각자 자신의 업을 갚기 위해 바친 지전(紙錢)과 경전을 비롯해, 예수재를 치렀다는 각종 문서를 받아 보관하는 일을 맡은 셈이니 더없이 소중한 역할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마구단권공(馬廐壇勸供)을 베풀어, 운마(雲馬)와 낙타 등을 청해 콩·여물 등의 공양물을 올린다. 이들은 사직사자를 태우고 다닐 뿐만 아니라 명부세계에 바칠 경전과 지전을 실어 나를 중요한 존재들이다. 먼 길을 힘들게 오가며 수고할 왕래하는 동물들에게도 빠짐없이 공양을 올려 섬김으로써 예수재는 원만히 회향된다.

이처럼 사자단·고사단·마구단을 차리고 공양을 올리는 절차는 예수재를 지내는 각 사찰에서 대개 빠짐없이 설행하면서 예수재의 의미와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간혹 사직사자를 청해 모시는 순서를 상단·중단 의례의 뒤로 돌리는 사례도 드러난다. 상위와 중위의 성증을 모시기 전에 사직사자를 먼저 청하는 것은 위계에 맞지 않고 불경스럽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사자를 먼저 청하여 예수재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빛을 갠고 정토로 향하는 과정 가시화

예수재의 가장 독특한 설정 가운데 하나는 누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빛을 안게 되는 데, 이는 경전을 보지 못한 빛과 금전적인 빛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참재자들

37) 동봉정휴, 앞의 책(2003), pp.19-20.

38) 구미래, 앞의 책(2014), pp.137-138.

은 각 단의 신적 존재들을 차례로 청해 경배와 공양의례를 올릴 뿐만 아니라, 경전을 읽고 지전을 헌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경전과 지전 빛에 대한 내용은 『수생경(壽生經)』에 담겨 있다. 이 경전은 실제와 무관하게, 현장법사(玄奘法師)가 서역에서 구도행각을 하던 중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발견했다는 유래를 지니고 있다. 내용 가운데 현재 예수재에서 경전을 보지 못한 빛을 갚고자 경전을 읽고, 수생전이라는 금전을 갚고자 지전을 헌납하게 된 근거를 살펴보자.

열두가지 띠를따라 남섬부주 거친세상 사람으로 태어날때 누구누구 할것없이
생명줄을 이어준돈 수생전을 빌리나니 명부에서 빌렸기에 갚아야할 것이니라
금강경과 수생경을 정성스레 독송하면 생명뿌리 본명전을 갚을수가 있느니라³⁹⁾

모든 중생은 육십갑자에 따라 각자 명부에서 수생전(壽生錢)을 빌려 생명을 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빛을 갚는 방법은 『금강경』과 『수생경』을 봉독하고 수생전을 불살라 명부전에 바침으로써 모든 액운과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침내 천상계에 왕생하게 된다고 하였다.⁴⁰⁾ 이렇게 태어난 해에 따라 육십갑자별로 읽어야 할 경전과 금전의 양이 정해져 있어 이를 십이생상속(十二生相屬)이라 한다.

이처럼 예수재에서 생전의 업을 빛으로 표현한 데는 중요한 뜻이 있다. 경전 빛은 삼보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금전 빛은 공덕을 쌓도록 이끌어 자신의 업을 맑히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따라서 예수재의 동참재자들은 각자 자신에게 부여된 업의 무게만큼 지전과 경전을 머리에 이고 도량을 돌게 되는데, 이 모습은 예수재를 상징하는 이미지이기도 하다.

또한 지전을 납입하여 빛을 갚고 나면 <합합소(緘合疏)>라는 한 장의 서류를 받게 된다. 재자의 이름, 주소, 갚아야 할 경전 수와 금액이 적혀 있는 이 서류는 예수재를 봉행함으로써 전생 빛을 모두 갚았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증명서에 해당한다. 합합소를 반으로 찢어 한 조각은 간직하고, 한 조각은 봉송 때 금은전·경전과 함께 불살라 명부세계로 보내기도 한다. 자신이 지닌 조각을 나중에 명부세계의 불태워진 조각과 맞추어보아 맞으면 그 공덕을 인정받아 내세의 길을 밝히게 된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39) 동봉정휴, 앞의 책(2003), p.202.

40) 위의 책, pp.202-208.

근일 이래로 두세 승니(僧尼)가 머리를 깎아 늘이고 속인의 복장으로 몰래 내지(內旨)라 일컬으며 산중에 있는 절에 출입하며, 쌀과 재물을 많이 가져다가 재승(齋僧)을 공양하고, 당개(幢蓋)를 만들어 산골에 이리저리 늘어놓고, 또 시왕의 화상을 설치하여 각각 전번(牋幡)을 두며, 한 곳에 종이 1백여 속(束)을 쌓아두었다가 법회를 실시하는 저녁에 다 태워버리고는 ‘소번재(燒幡齋)’라 이름 합니다.⁴¹⁾

조선중기에 예수재를 ‘소번재(燒幡齋)’라는 이름으로 설행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한 곳에 종이 1백여 몽치를 쌓아두었다가 다 태워버린다”는 표현에서 당시에도 지전이 예수재를 특징짓는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예수재에서 빛을 가시화하기 위해 간이경전과 지전을 만들어 마지막 회향 때 다시 소대에서 모두 태움으로써 낭비로 여겨질 수 있다. 사찰에 따라서는 방편에 불과하고 낭비라 하여 지전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예수재는 그 자체로 수승한 경지의 수행자들이 모여 마음을 닦는 수행법회가 아니다. 명부세계가 등장하고 사직사자가 지상과 명부를 오가는 의례이기에, 불필요하고 방편적으로 보이는 지전과 함합소 등은 예수재의 의미를 설명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번거로움과 낭비에도 불구하고 경전과 지전을 만들어 쓰는 뜻은 참회를 이끌기 위함이고,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그 의미를 가시화·극대화하기 위함이다.⁴²⁾

이윽고 지전과 경전을 헌납한 동참재자들은 사찰에 놓인 거대한 반야용선을 보며, 그들이 타고가게 될 정토를 꿈꾸게 된다. 사찰에 따라서는 탈 수 있는 반야용선을 만들어 동참재자들을 태우고 도량을 돌기도 하면서 환희로운 축제처럼 예수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참회하는 가운데 지전과 경전을 헌납하여 자신의 업을 갚고, 그 징표를 받아 지니며, 반야용선에 몸을 싣게 되는 예수재는 불자로서 최대의 축제일이라 할 수 있다.

VI. 예수재의 현대적 의의와 방향성

시대가 바뀌면서 의례 또한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불교의례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의례는 시대의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새롭게 재편되어가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41) 『中宗實錄』 中宗13年(1518) 7月 7日(甲寅).

42) 구미래, 앞의 논문(2015), pp.69-71.

다. 종교의례는 변화의 흐름이 완만한 편이지만 의례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야 하는 데는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의례양상은 조금씩 달라지더라도 예수재에 담긴 본래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예수재를 지내면서 사후극락을 발원하고 살아생전의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단지 살아있을 때 극락왕생을 위한 불공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보다 큰 공덕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데 예수재의 참뜻이 있다.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소홀했던 자기수행을 점검하고 선행을 발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재를 설행하는 목적이라 하겠다.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에 “살아서 선업을 닦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어 죽었다면 권속이 그를 위해 복을 지어줄 때 그 공덕의 7분의 1은 망인에게 돌아가고 나머지는 산 사람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말을 잘 들어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모두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살아있을 때 스스로 수행하여 닦는 복이 사후에 대신 지어주는 복보다 훨씬 큰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불교를 믿는 것은 참된 가르침으로 수행하여 탐욕과 어리석음과 분노의 삼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따라서 마음공부에는 소홀한 채 자신의 복된 내세만 바라는 것은 불교의 기본가르침인 인과응보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재의 경전 빛이다. 이에 비해 금전 빛은 삼보로부터 받은 가르침에 대해 대가없는 보시를 이끌어 공덕을 쌓도록 하는 뜻이 담겨 있다. 이처럼 경전 빛은 불법으로 인도하고 금전 빛은 공덕을 쌓도록 이끌어 자신의 현세 업을 맑히게 하는 것이다.

예수재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예수재의 설행은 현재의 모습보다 훨씬 폭넓게 열려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설행시기의 측면에서 본래의 예수재가 오늘날 초하루·보름 법회처럼 일상 속에서 닦아나가는 수행의례였다는 사실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현재 불자들이 상시 행하는 ‘극락왕생 불공’을 참회와 공덕의 예수재로 수용한다면, 보다 성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초하루·보름 법회 또한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고 드러내어 참회하는 포살(布薩)로, 출가자를 중심으로 한 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출가수행자의 참회의식이 포살이라면, 재가불자의 참회의식은 예수재였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검증되어온 것이다. 예수재에는 불교의 세계관과 수행관이 모두 집약되어 있어, 현재 한국특유의 윤달문화와 함께 형성된 윤달예수재는 그 자체로 전승시켜나가야 할 독자적인 의례이다. 따라서 불교종합예술이자 다채로운 의례요소와 결합된 윤달예수재와 병행하여, 일상의 예수재 또한 점차 회복해나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원전류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歲時記』

『三國志』

『中宗實錄』

2. 단행본류

구미래, 『존엄한 죽음의 문화사』, 서울: 모시는 사람들, 2015.

구미래,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복 짓기』, 서울: 아름다운 인연, 2014.

동봉정휴, 『일원곡(一圓曲)』 권7,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2003.

박경신, “산 오구굿”, 『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 편』,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9.

이능화 지음, 이병두 역주, 『조선불교통사: 근대편』, 서울: 혜안, 2003.

정각(문상련), 『한국의 불교의례』, 서울: 운주사, 2001.

한용운 지음, 이원섭 옮김, 『조선불교유신론』, 서울: 운주사, 1992.

慧日明照, 『예수재』, 서울: 에세이퍼블리싱, 2011.

3. 논문류

고영섭, 「한국의 근대화와 전통 불교의례의 변모」, 『불교학보』 55, 서울: 불교문화연구원, 2010, pp.391-431.

구미래, 「생전예수재의 종교문화적 의미와 위상」, 『淨土學研究』 23, 서울: 韓國淨土學會, 2015, pp.47-74.

구미래, 「천도제에서 관욕의 상징성과 수용양상」, 『淨土學研究』 22, 서울: 韓國淨土學會,

- 2014, pp.49-85.
- 구미래, 「윤달의 민속심리와 주술·종교적 특성」, 『비교민속학』 36, 서울: 비교민속학회, 2008, pp.331-361.
- 김희균, 「예수재란 무엇인가: 업장소멸 모두 하라, 살아있는 영혼 정화시키는 천도재」, 『대중불교』 125, 서울: 대원사, 1993, pp.66-69.
- 남희숙, 「16-18세기 佛敎儀式集의 간행과 佛敎大衆化」, 『韓國文化』 34, 서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4, pp.97-165.
- 노명열(혜일명조), 「생전예수재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淨土學研究』 23, 서울: 韓國淨土學會, 2015, pp.75-127.
- 도문스님·법등스님 대담, 「생전예수재: 불심 도문 큰스님께 묻다」, 『혜인』 325, 2009, pp.6-11.
- 朴勝周, 「齋供儀式에 對하여」, 『佛敎』 第35號, 1927. 7, pp.31-35.
- 성청환, 「조계사 생전예수재의 역사와 의의」, 『淨土學研究』 23, 서울: 韓國淨土學會, 2015, pp.129-166.
- 송현주, 「근대한국불교 개혁운동에서 의례의 문제: 한용운, 이능화, 백용성, 권상노를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6, 서울: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2000, pp.157-183.
- 이민환, 「예수재 참관기」, 『세계불교』 7, 서울: 세계불교사, 1990, pp.37-40.
- 이성운,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 『淨土學研究』 23, 서울: 韓國淨土學會, 2015, pp.9-45.
- 鄭明熙, 「儀式集을 통해 본 掛佛의 圖像의 변용」, 『불교미술사학』 2, 경남: 통도사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2004, pp.6-28.
- 홍윤식, 「전통불교의식의 현황과 금후의 과제」, 『불교전통의식의 보존과 계승의 문제』, 범패시연 및 학술회의 자료, 서울: 조계종 전통불교의식 보존연구회, 2004.

<Abstracts>

Transmission Aspect of Modern *Ye-su-jae*(Advanced Funeral Ceremony)

Koo, Mee-Rae

The *Ye-su-jae* is a Buddhist ritual to be done during one's lifetime for after one's death in order to build good deeds and good karma in advance. In this article, we have examined various methods of modern *Ye-su-jae* and have analyzed its ritual characteristics to demonstrate both its meaning and directivity.

The ritual formula states that *Ye-su-jae* shall be done on the first or fifteenth day of the month, but it has become a ritual to be done in a leap month. This seems like the result of the combined ideas of ① the history of holding a Buddhist service in a leap month and ② the thought of the gateway to heaven being opened during a leap month since there is no God to watch over the people. Particularly, *Ye-su-jae* has been handed down as a combination of local customs in death preparation culture, which wishes a long life and an easy passage into eternity by preparing a shroud in advance. Therefore, it presents a dynamic aspect like a festival or riding the *Banya-Yongsun*, which is a wisdom ship, toward heaven and even deprives the person of a *San-Ogu-Gut*, which is an *Ogu-Gut* while he or she is still alive.

Furthermore, *Ye-su-jae* is a ritual for the living, but it is also performed to facilitate easy passage into eternity for the deceased, and is even hosted in a combination of the *Suryuk-jae* or *Youngsan-jae*, which put emphasis on *Mucha-Chundo*. In addition to this, it is traditional to hold *Ye-su-jae* for a group, but it is not rare to find cases of holding *Ye-su-jae* for an individual or a few people.

Based on the ritual characteristics of *Ye-su-jae*, the current transmission aspect can be summarized in few matters. First, the existence of the lower podium is the beings of nether world in *Ye-su-jae*, but it is connected to 'the existence of lower podium=the spirit'

and the *Hadan Kwanyok*, a spiritual purification has stood out to dilute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Seol-Dan*. Second, the meaning of the middle podium ritual, based on ten kings in the nether world is of most importance in *Ye-su-jae*, but has received no attention relative to the middle podium ritual since it hosts *Youngsan-Jakbub* together.

Third, *Ye-su-jae* reveal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ritual through the procedure of presenting an offering to Buddha with *Saja-dan*, *Gosa-dan*, and *Magu-dan*, which is the beings of nether world in the lower podium, but the descriptive meaning of *Ye-su-jae* can be changed by requesting Four Underworld Messengers who send an invitation to the nether world at the end of the ceremony. Fourth, it is usual in *Ye-su-jae* to bring paper money, which presents the karma of one's lifetime as a debt, and *Banya-Yongsun*, which reveals the course toward the promised land; if these are omitted, the core element of *Ye-su-jae* will be lost.

Traditionally, if the repentance ritual of the ascetic is uposatha, the repentance ritual of the Buddhist has been *Ye-su-jae*. *Ye-su-jae* has integrated the Buddhist view of the world and the asceticism, so the Lifetime *Ye-su-jae*, which has been formed with the distinctive leap month culture of Korea, has to be handed down as it is. Therefore, *Ye-su-jae* of everyday life shall be recovered gradually as well as the leap month *Ye-su-jae* combined with various ritual elements as a comprehensive Buddhist art.

• Keywords

Buddhist Ritual, Leap Month, Shroud, *Banya-Yongsun*, ten kings in the nether world, *Chundo*, Soul Cleansing, *Jijeon*.

논문접수일: 2015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1일,
게재확정일: 2015년 12월 3일.